

특별대담

## 과총 14대 회장에 취임한 金始中 박사

대담 / 朴澤奎 본지 편집위원장  
장소 : 과총 회장실  
일자 : 1월 25일 오후 4시



# “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과총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시중(金始中)박사는 본지와 특별대담에서 ‘과총은 이제 과학기술자에 의한, 과학기술자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총 집합체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앞장서겠으며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과총 산하에 지부를 결성하여 과총의 역할을 지역단위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4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회장께서는 1992년 10월부터 과총 회장 대행으로 있다가 이듬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처 장관에 입각한 바 있으므로 10년만에 다시 과총 회장직으로 복귀하신 느낌이 듭니

다. 우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경제발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토대 위에서 국가의 안보가 굳건히 다져지며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도 계속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과학기술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민의 사고도 과학적 사고, 즉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나라 발전의 일을 주관·추진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본질을 이해시켜야 하는 단체가 바로 과총이라 믿고 있습니다.

### “과총을 마음의 고향으로”

저는 역대 회장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과총이 오늘날과 같이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과총이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창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과학기술인들의 진실한 마음의 고향이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총은 과학기술인들이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안식처, 서로 뭉치고 격려하면서 힘을 보태고 서로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따라서 과총은 이제 과학기술자에 의한, 과학기술자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총집합체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과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의 바람과 의지가 담긴 유일한 단체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3년 임기 동안 힘을 기울여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젊은 인재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진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부가 젊은 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과학기술자 개인 뿐만 아니라 과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진흥시켜야 한다는 명쾌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나 훈장제도 마련 등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과

학기술인의 피부에 닿고 국민의 우대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이면서 직접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과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노력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 절실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관들이 있으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도가 아직 없다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두어 중요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할 때 신속하고 올바르게 건의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때 각 정당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전국구 의원으로 배정하는데 인색한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 자연계 대학 출신 의원이 22명이 있는데 자연계 대학 출신 의원들이라 해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과학기술을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 총선 때는 전국구 국회의원에 일정 비율의 과학기술계 전문인력을 배정받아 과학기술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과총이 추천하는 훌륭한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조사로 알 수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을 기피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이공계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 많은 젊은이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고시준비에 몰두하는 현실은 정말 짙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일소하고 젊은 과학기술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게 하려면 병역 단축 복무 등 국가 차원의 혜택을 주어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 지부결성, 지역단위 활성화

다음으로 과총의 정관을 일부 개정하여 지부를 결성하여 과총의 역할을 지역단위에서도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각 도에 지부를 둘 것인지, 그 밖의 지역마다 지부를 결성할 것인지는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부를 결성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특색있게 추진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과총이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전국 규모로 확산시켜 추진할 것입니다.

■ 과총은 학술단체의 모임인 만큼 학회의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그 동안 학회, 연구소는 물론 과총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앞으

로 과총은 학제간 국제 학술회의, 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 중 우리나라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가령 설악산 또는 속리산 등에서 수일간 숙식을 함께 하는 서양의 Golden Conference와 비슷한 형식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외국 석학들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깊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제간 국제회의는 1년에 여러 분야에 대하여 여러 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 금년에는 3~4개 분야를 선정, 개최하고자 하는데 학회 의견을 들어서 분야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술 토론행사를 몇년 계속하면 학문과 지식의 세계화, 정보화를 이룰 수 있고 후배와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세계무대로 진출시키는 지름길이 마련될 것입니다.

### 해외 과학자 자녀 모국 초청

다음으로 해외에 있는 교포의 과학기술계 수학 자녀, 즉 1.5세대나 2.0세대 40여명을 매년 선발, 초빙하여 조국에 대한 애국심, 한국적인 정서를 심어주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빛낼 차세대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젊은 과학도 중에서 엄선해야겠지요.

한편 학술단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얻도록 노력하여 학회지 발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금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사학회간의 학회지 공동발간도



권유하고 학회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과학기술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투자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일, 바꾸어 표현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다루는 과학기술 경제학 등의 연관 학문의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홍보, 과학행정, 과학사회, 과학경제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를 개발하는 작업을 과총이 앞장서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 ■ 국민생활의 과학화운동은 과총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생활의 과학화운동은 과학풍토 조성과 함께 과총이 추진해야 할 실천적 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학적·합리적 사고방식의 정립과 생활화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생활의 바탕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첨단과학기술시대,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공부를 계속하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생동안 과학기술과 가깝게 할 수 있는 인쇄매체로 「과학과 기술」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 이 잡지가 국민대중의 교양 및 과학기술관련 최신 정보를 얻는 창구로서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총 산하의 출판·홍보기구를 통합하고 「과학과 기술」지 등 홍보인쇄매체를 독립시켜 새로운 양식의 과학기술 대중잡지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작된 SBS(Science Book Start)운동도 사단법인 '과학사랑, 나라사랑'이 설립되어 지난 수개월 동안 3만7천여권의 도서를 전국의 벽지학교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우리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 과학화운동도 과총의 힘만으로는 성공

하기 어려우므로 과학문화재단, 전국 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박력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는데 특히 민간차원의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남북 과학기술인들의 만남은 공식적으로 이미 1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총과 성격이 비슷한 조선과학기술총연맹과 재중 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우리 과총이 1991년도에 '91 중국국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조선과학기술총연맹에서 45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남북 과학기술자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순수한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는 매우 쉬운 일이라 믿어 집니다.

## 민간차원 남북교류 확대

특히 순수 과학기술 분야에서 남북의 전문 과학기술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학문적인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교류의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과 여건이 성숙되면 자료교환, 상호방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 평양, 외국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의 회장이나 그 밖의 인사가 만나서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개시

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 과총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독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총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의 과학기술회관 신관 8천여평 건물은 제가 회장 대행일 때 기공식을 가졌는데 정말로 돈 한푼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건물이 완공되어 많은 학회들이 입주하여 재정적인 수입도 있으나 아직도 과총이 수익사업을 통해 명실공히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과총이 역사에 남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과총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이고, 운영비는 자체 부담인데 사업비도 과총이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과총 보유 부동산을 수익성 부동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됩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면 밝은 전망이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 과총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과 운영의 변화를 모색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과총의 운영형태를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과총은 회장, 사무총장 체제로 운영되었습지만 과총의 주인은 과학기술인들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신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 중심체제로 전환한 운영시

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현재의 10여개 위원회에 각각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각 위원회를 분담책임제로 운영하고 행정조직은 지원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사무총장은 심부름꾼이고 과총 부회장이 겸임하게 될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관련 중앙부처의 장, 차관들이나 실무국장들과 관심사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이 일하는 과총으로 바꿀 것입니다.

## 동(動)적인 '과총'으로

끝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았고 또 과학기술관련 학회를 운영한 경험,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봉직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우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학기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성원 각자가 어떤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에 앞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전에 나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수동적인 사고와 자세 그리고 행동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의식을 갖자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정적인 과총이 아니라 동적인 과총이 되도록 앞장서겠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랍니다.

■ 과총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감사드리며 과총을 위한 신임 회장의 헌신적인 봉사과 기여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㉞